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우리동네 품격 높인다

문광부·광주 5개 구청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남구 '사진공방 끼' 덕림마을 광산구 '예술희동조합' 도산동 서구 상무대 옛터·518 역사길 일부 동구 65년 역사 박옥수 고택 활용 '북구미술인조형' 문흥지하 보도

예술단지 전략해 외면받지 않도록 세심한 기획·작품 제작 선행돼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는 문화 예술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미술을 모티브로 한 기획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7월부터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을 진행 중이다.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최종 사업 마감은 내년 2월이다.

모두 9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각 4억원(시·비·구·군 각 4000만원 포함)씩이 배정됐다. 각 프로젝트마다 최소 37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해야 하며 예술가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5% 수준이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예술인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일부 공공미술 작품 중에는 오히려 도심 풍경을 해치는 예술단지들도 많았던 점을 감안, 세심한 기획과 작품 제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자치단체들도 자칫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공공미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장소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진행 과정에서 예술가,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꾸준히 추구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 5개 구의 경우 남구와 광산구, 북구가 사업 수행팀을 결정한 상태며 나머지 동구와 서구는 공모를 진행 중이다.

남구는 공모를 거쳐 '사진공방 끼'를 사업자로 확정했다. 사업 장소는 월산동 덕림마을이다. 국토부 공모 주거개선사업인 새뜰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사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은 덕림마을의 유래를 담은 조형물 등 마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예술적 접근을 강화하고, 아트적 느낌이 가미된 편의시설 등도 조성한다. 특히 덕림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 등



광주시 동구청이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박옥수 고택.

을 통해 의견을 수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사)예술희동조합이 사업을 맡는다. 장소는 송정역 맞은편 1319 송정역 시장 인근 도산동 일원이다. 구는 광산 지역에서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를 하지만 개발이 덜 된 곳을 목표로 장소를 모색했다. 사업비가 넉넉치 않음을 감안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린 지역을 염두에 뒀고 도산동을 낙점했다. 이 지역에 많은 빈집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자문단을 꾸려 선정 예술단체와 사업 계획서를 함께 수정·보완하고 주민과 예술가의 이해관계를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는 문흥지하 보도(문흥동 1002-4)를 사업 장소로 정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보도에 예술적 향기가 물씬 나는 공공미술을 입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북구청은 14일 오후 심사를 열고 공모에 응한 3개팀 가운데 '북구 미술인조형연구회'(대표 정용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모를 진행중인 서구는 상무대 옛터와 서구 이음길 중 5·18 역사길 일부 구간을 사업장소로 확정했다. 상무대 옛터가 5·18 사적지이지만 표지석 하나만 세워져 있어 오월의 흔적을 알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상무대가 장교 양성 기관으로도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상무대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과 안내판, 작품과 결합한 편의시설, 잊혀진 상무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다양한 미술 작품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넓은 지역을 사업 장소로 확정한다 구와 달리 동구는 '특정 공간'을 사업지로 택하고 '동박(Park) Citizen Lab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동구가 선택한 공간은 1954년 지어진 '박옥수 고택'이다. 이 고택은 당초 철거 예정이었으나 한옥과 양식·일본식이 어우러진 복합형 근대건축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부각되면서 '보존' 목소리가 이어졌고 동구청이 매입했다. 구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 공간을 '시티즌 랩'으로 꾸밀 예정이다. 구는 원형 보존이라는 원칙 아래 고택을 새로운 쓰임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공예가들이 합류해 소품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팀을 공모 중이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공간과 로컬 자원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가정 '보통사람 시민의 1박2일'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시민 인문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도시협, 시민문화강좌 16~25일 수·금 유튜브 진행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이하 광주문도협)는 '문화관광도시 광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문화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지역의 10여개 시민문화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지난 7월 광주문도협이 출범함에 따라 문화도시 광주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획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온라인 생중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6~25일 매주 수·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 '광주문도협 생중계'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16일에는 안대기 광주대 교수가 '축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문화관광 상상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김광호 여행코리아 대표가 '광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지속가능성'(18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문화관광도시 광주! 현 주수와 미래'(23일)를 살펴본다.

마지막 강좌는 '행복한 해설사를 위한 소통의 기술'로 이영 전남과학대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26일에는 대전 문화 탐방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광주문도협 생중계는 지난 2016년 시작돼 문화와 인권, 문화와 지역경제, 문화와 도시재생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좌를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다큐멘터리·시나리오 과정

'2020 하반기 광주영화학교'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기획과정'과 '장편 시나리오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0 하반기 광주영화학교'는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주최·주관하며 광주 영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두 개 과정 모두 14일부터 2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총 10명 이내이다.

교육은 광주독립영화관GIFT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도 이뤄진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는 '장편 다큐멘터리 기획과정'에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거미의 땅' 등을 만든 김동형 감독이 강사로 나서며, '내친구 정일우'의 김동원 감독이 특강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독립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영화의 탄생과 다큐멘터리', '초기 영화의 시선, 촬영, 편집의 문제', '다큐멘터리 방법론' 등으로 구성됐다.

'장편 시나리오 과정'은 10월 8일 시작한다. '식객:김치전쟁'을 연출한 김길형 감독이 강사로 참여하며, '영화 제작과정의 시나리오 중요성', '영화 주제 설정', '시나리오 작법 연구', '3막 구조의 이해' 등을 강의한다. 문의 062-222-1895.

/전재재 기자 ej621@kwangju.co.kr

방탄소년단 RM, 미술계에 1억원 기부

국립현대미술관 도록 제작 전국 400개 도서관 배포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26·사진)이 미술계에 1억원을 쾌척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RM이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을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RM은 자신의 생일 9월 12일을 기념해 "미술책 읽는 문화가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을했다고 미술관은 설명했다.

RM의 기부금은 미술 서적 보급에 쓰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도록 및 한국 작가 도록 등 총 4000권을 제작해 다음 달 전국 400곳 공공도서관 등에 기증한다. 도서는 김환기·이중섭·변월룡·유영국·박래현·윤형근·이승조 등 한국 작가 도록 7종과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 '미술관에 쓰는 한국 근현대 서예전' 전시 도록 중 1권을 묶은 한 세트 8권으로 구성된다.

RM은 바쁜 일정에도 전국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 등을 방문했다. 지난 12일에도 서울 국제갤러리를 방문, 에이스트릭트의 'Starry Beach'를 감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렸다. 그가 다녀간 전시는 화제가 되며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미술계는 'RM 효과'로 국내외 BTS 팬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한국 미술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며 반겼다. /연합뉴스

과거의 추억 속 '기억의 교차'

주안미술관 30일까지... 노여운·백상옥·유지원·인춘교 작가 초청

'오래된 기억을 만나다.' 주안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기획전 '기억의 교차'전을 연다.

노여운, 백상옥, 유지원, 인춘교 4명의 작가를 초청한 이번 전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기억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는 기획이다. 과거가 단순히 사라져 버린 시간이 아닌, 현재의 삶과 길게는 미래까지 잉태하는 과정이었음을 서양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보여준다.

노여운 작가는 오래된 골목길의 풍경을 따뜻한 파스텔톤의 작품으로 표현해냈으며 백상옥 작가는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신을 활용한 인물 작품을 전시한다. 또 유지원 작가는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카드와 재개발 공간을 재해석한 영상 작품을 선보이며 인춘교 작가는 앙리몽의 다양한 풍광을 담은 사진 작품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주안미술관은 현재에서 과거를 담고, 과거에서 현재를 담은 '시·대·이·음·과·거'를 현재하다' 키트를 기획해 관람객들이 예술작품을 통한 추억을 함께



노여운 작 '기억하다'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정보는 주안미술관 인스타그램(@juan_artmuse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